

은성코퍼레이션, ULPA 필터 양산

초극세 복합소재 이용해 유리섬유 대체 ... 2006년 개발 완료 예정

초극세사 전문기업인 은성코퍼레이션(대표 이영규)이 초극세 복합소재를 이용한 ULPA 필터를 2006년까지 개발해 양산할 계획이라고 9월14일 공시했다.

은성은 2004년부터 초극세 복합소재를 이용한 ULPA 필터 개발을 시작해 2006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은성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정부 및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총 97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ULPA필터 생산설비 신축을 위해 충북 진천·음성일대에 약 5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나 생산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ULPA 필터는 0.1-0.2 μ m의 분진을 99.999% 이상 여과할 수 있는 나노급 필터로 주로 반도체용 에어필터에 사용되며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ULPA 필터가 유리섬유 여체를 기초로 해 폐기시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됐는데 은성이 개발하는 제품은 초극세 복합소재를 방사해 제조하기 때문에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없어 2006년 양산되면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수출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은 ULPA 필터 개발로 2007년 40억원, 2008년 20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65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16>